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강혜원**·이정윤***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20대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질적 양적 혼합연구법인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20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5명으로, 초점 집단을 통해 아이디어를 산출한 후 이를 축약하여 총 76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어 참여자 중 15명이 유사성 분류작업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 척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차원(여성에게 부과하는 개인적 기대 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대 성차별)과 6개 군집(외모에 대한 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이 도출되었다. 각 진술문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평정한 결과, 20대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성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순으로 성차별이 심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여성 경시, 외모에 대한 차별, 딸 역할에 대한 기대는 동일하게 성차별적인 것으로 평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차별, 미묘한 차별, 미묘한 성차별, 여성, 개념도

*이 논문은 201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구 참여자 인터뷰 진행에 도움을 준 권수아 학생에게 감사를 표한다.

** 제1저자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 수료(hyewon8096@gmail.com)

*** 교신저자 :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jungyoon@sungshin.ac.kr)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여기며 불리한 혹은 유리한 방향으로 차별한다. 인종, 나이, 외모, 학력, 출신 지역 및 학교 등 수많은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성(性)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등 많은 여성 인권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왔다(최수연, 2009). 즉,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의식조사(2019)’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20대 여성은 무려 73.5%에 다다랐다. 이는 아직도 한국의 많은 여성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라고 정의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 2010). 더 구체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르게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성차별을 2가지로 분류한다면,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명백한 구시대적 성차별주의(Old-fashioned Sexism)와 표면적으로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를 유지하는 방식인 현대적 성차별주의(Modern Sexism)로 분류할 수 있다(Dipboye & Colella, 2005).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향해 성 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지하거나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대적 성차별은 더욱 애매모호하고, 미묘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Sue, 2010).

학자들은 현대의 새로운 양상의 성차별을 미묘한 성차별(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은 미묘하게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차별 행동을 칭하는 용어로, 주로 유색인종차별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다. 미국에 거주 중인 동양인에

게 “너는 언제 미국으로 이민 왔어?” 라고 묻거나, 흑인에게 “대학에 진학하다니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은 미묘한 차별의 예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미묘한 차별을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에도 적용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Gartner & Sterzing, 2016; Nadal et al., 2015; Timmins, Rimes, & Rahman, 2017). 즉, 미묘한 성차별이란 노골적이고 의식적이지 않으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성에게서 힘을 빼앗고 여성을 통제하는 차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e, 2010). 이와 같은 성차별은 미묘하고 은밀하기 때문에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Pierce, 1970).

미묘한 인종차별(Race Microaggression)과 같이 미묘한 성차별은 미묘한 폭행(Microassault), 미묘한 모욕(Microinsults), 그리고 미묘한 무효화(Microinvalidation)와 같은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Sue et al., 2007). 성에 대한 미묘한 폭행(Gender Microassault)은 명백하고 가시적인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성차별과 가장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고소가 쉽고 누구나 쉽게 차별적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성에 대한 미묘한 모욕(Gender Microinsults)은 소수자에 대한 비하, 모욕 등이 내포되어 있는 행동이나 언어를 말하며, 성에 대한 미묘한 무효화(Gender Microinvalidation)는 소수자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동이나 언어를 말한다. 성에 대한 미묘한 모욕(Gender Microinsults)과 성에 대한 미묘한 무효화(Gender Microinvalidation)는 매우 미묘하고 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성에 대한 미묘한 폭행(Gender Microassault)보다 해롭다.

미묘한 성차별이 명백한 성차별과 비슷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유는 미묘한 성차별의 가해로 인해 피해 여성이 경험하는 불쾌한 현실과 표면적으로는 온건해보이는 차별 사이의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Derthick, 2015; Sue et al., 2009). 가해자의 성차별 가해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고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의심, 소외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Nadal & Haynes,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김은하, 2018)

이러한 미묘한 성차별은 중장년층의 여성보다 젊은 여성들이 더 명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50대 여성보다 여성이 받고 있는 차별의 정도를 더 높게 인식했다(이연정, 2019). 현대의 젊은 여성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비하여 더 낮은 경제 및 사회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로 인해 높은 우울과 불안감을 느낀다(Harris, 2004). 한국에서도 교육기회에서의 성차별은 이제 거의 가시화되지 않지만, 성인이 되어 성차별적 사회를 직면하면서 20대 여성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예은·연구진, 2018).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2015년 메갈리아 사이트 출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어 '미투(#MeToo) 운동' 등을 계기로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의 대중적 화두가 되었으며, 20대 여성은 페미니즘의 대중화의 주체로 평가된다(오혜진, 2019).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해 20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다. 사회 변화와 페미니즘의 대중화로 인해 현대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과거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대중화의 주체로 평가되는 2010년대의 20대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는 외국에서 먼저 개발되었는데, 치료 관계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Microaggression against Women Scale(MAWS; Owen, Tao, & Rodolfa, 2010), 일상 생활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Gender Microaggression Scale(GMS; Capodilupo & Torino, 2012: 미발표), 성과 인종에 대한 미묘한 차별을 측정하는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GRMS; Lewis & Neville, 2015)가 있다. 그 중 일상 생활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GMS는 총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Traditional Household Duty Expectation), 대상화(Objectification), 자기주장에 대해 혹독하게 여김(Harshly Labeled Assertiveness), 외모에 대한 압박(Appearance Pressure),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Marriage and Child Bearing Expectation), 성차별의 부정(Denial of Sexism), 가부장적 직업기대(Patriarchal Work Expectation)이다. 김예은과 연구진(2018)은 GMS를 사용하여 20대~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었다. 먼저, 김은하 외(2017)는 취업 상태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척도(Micro-aggression against Women Scale in the Workplace; MAWS)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들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부분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하(2018)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차별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인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EGM은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으로 나타났다.

EGM이 2요인 구조로서 7요인 구조를 지닌 GMS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김은하(2018)는 아직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예은과 연구진(2018)은 GMS가 우리나라 성차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별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20대 여성이 지각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개념도는 어떠한가? 둘째,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진술문 중 가장 성차별적으로 평가된 경험은 어떤 것들인가?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는 향후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성차별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Sue와 Capodilupo(2008)는 미묘한 성차별을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는 모욕들이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다. 이어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범주를 9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 2등 시민으로 간주함(Second-class Citizenship),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Use of Sexist Language), 열등한 존재(Assumption of Inferiority), 성차별 현실의 부인(Denial of Reality of Sexism), 전통적인 성 역할 맡기(Restrictive Gender Roles), 여성의 투명인간화(Invisibility), 개인적 성차별 부인(Denial of Individual Sexism), 성차별적인 농담(Sexist Humor and Joke)이 포함된다.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남성의 유희를 위한 성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여성의 외모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2등 시민으로 간주함은 여성은 남자와 같은 기회, 대우, 혜택 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성차별적인 용어

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교수, 의사, 배우 등의 직업을 여교수, 여의사, 여배우 등 '여'자를 붙여서 여자를 따로 명칭하거나, 결혼한 부부 중 남편의 집안은 시댁이라고 높이는 반면, 부인의 집안은 처가라고 높이지 않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어에서도 보편적인 사람을 칭할 때 man, mankind와 같은 남성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열등한 존재는 여성이 대인관계나 돌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능하지만,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은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 역할 맡기는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따르지 않으면 여성을 모욕하거나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남자는 그렇지 않지만 여자는 결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거나, 여자의 사회생활은 남자의 사회생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등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이 이러한 역할을 어기고 남성처럼 행동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얻게 된다. 성차별의 부인은 현대사회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없고 성차별적인 불만을 가진 여자는 너무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투명인간화는 여자는 중요하지 않고 굳이 알아 봐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말한다. 여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적인 요구로 치부한 다던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할 때 남자에게는 앞 번호를, 여자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예가 있다. 개인적 성차별 부인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차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의식적인 성차별 부인은 남성이 자신의 명백한 성차별을 숨기고자 하는 것일 수 있고, 무의식적인 성차별 부인은 남성이 성차별주의자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차별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차별적인 농담은 진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자에게 유해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농담을 말한다.

일상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는 Gender Microaggression Scale(GMS)가 있다(Capodilupo & Torino, 2012: 미발표). 이 척도는 33개의 문항과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Traditional Household Duty Expectation), 대상화(Objectification), 자기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Harshly Labeled Assertiveness), 외모에 대한 압박(Appearance Pressure),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Marriage and Child Bearing Expectation), 성차별의 부정(Denial of Sexism), 직업에 대한 가부장적인 기대(Patriarchal Work Expectation)가 있다.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는 여성에게 요리, 청소 등 가정 내에서의 일을 하길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화는 여성의 몸과 외모가

여성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주장에 대하여 혹독하게 여김은 여성이 겸손하거나 친절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때 여성에게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여성이 자기 주장을 하면 ‘기가 세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예가 된다. 외모에 대한 압박은 여성의 여러 다른 특성보다 외모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여기거나, 외모 치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는 여성은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결혼과 출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의 부정은 현대사회에는 더 이상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예민하고 까다로운 여성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가부장적인 기대는 여성이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남성과 같은 기회, 주도권, 경제적 이익 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제안 받거나, 중요하고 가치적인 업무들은 여성 직원보다 남성 직원에게 더 많이 배정되는 상황이 예가 된다.

Judson(2014)은 미묘한 성차별은 성차별적 행동에서 성차별적 의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고 “미묘하게” 드러나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묘한 성차별과 기존의 성차별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묘한 성차별은 여성들에게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유발하는 차별요인임을 밝혔다(Banks, Kohn-Wood, & Spencer, 2006; Noh, Kaspar & Wickrama, 2007). Basford, Offerman과 Behrend(2014)의 연구에서도 직장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지각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미묘한 성차별을 더 잘 인식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연구가 확장되어 여러 미묘한 차별을 다중으로 경험하는 대상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Moody와 Lewis(2019)는 흑인 여성들은 흑인이라서 경험하는 인종차별과 여성이라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분리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합친 압박을 경험한다고 설명하며,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인종차별에 미묘한 성차별이 더해진 미묘한 성-인종차별(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이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김예은과 연구진(2018)이 Gender Microaggression을 미묘한 성차별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20대~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미묘한 성

차별 경험이 분노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자기 침묵과 분노 억제를 순차적으로 매개로 하며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손지빈, 2019).

김은하(2018)는 미묘한 성차별 개념을 적용하여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국내의 EGM은 총 2개의 요인,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요인에는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함, 소극적이기를 기대함, 전통적 가사 의무에 대한 기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요인에는 성적 대상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ender Microaggression을 미묘한 성차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이는 기존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차별과 달리 조금 더 미묘하고 애매모호한 성차별이며, 여성을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진 말과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행동과 생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III. 연구 방법

국내에서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서 명확한 개념 및 이론 체계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용어도 미묘한 성차별, 일상 속 성차별 경험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김예은 · 연구진, 2018; 김은하, 2018). 미묘한 성차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미묘한 성차별의 구성요인 및 개념이 먼저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구성요인 및 개념을 밝히기 위해 개념도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개념도 연구 방법은 구조화된 개념화 과정의 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심리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Kane & Trochim, 2007). 특정 집단이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고유한 관점으로 해석할 때 사용하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 척

도법과 위계적 군집분석 등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혼합 연구방법이다(Bedi & Alexander, 2009). 구체적으로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아이디어를 종합, 편집하여 진술문 형태로 제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내용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진술문을 분류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특정 현상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제시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 세계가 아니라 특정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에 대해 개별적인(ideographic)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 개념도 연구방법의 장점이다(김지혜 · 이상희, 2013). 더 나아가 경험적 접근과 동시에 통계적 방법을 취한다는 점이 질적 방법으로만 분석하는 접근법과는 다른 강점을 가진다(우성범, 2019). 개념도에서 제시하는 군집이나 문항들을 척도 개발 시 척도의 하위요인이나 문항내용으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도 연구를 척도 개발 이전에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민경화 · 최윤정, 2007; Rosas & Camphausen, 2007). 마지막으로, 개념도 방법은 선행연구가 미비하거나, 확립된 이론 체계가 부족한 주제의 연구에도 적합하다(Johnsen, Biegel & Shafran, 2000).

1. 연구 참여자

개념도 연구를 위한 면접 및 자료 분석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념도 연구의 참여자는 최소 8명에서 최대 40명이 적합하다는 Kane과 Trochim(2007)의 의견과 일반적으로 10~20명 정도의 초점 집단을 사용한다는 보고(정찬석 · 이은경 · 김현주, 2004)를 참고하여 브레인스토밍 초점집단 참여자로 총 2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이 포함된 연구 참여자 공고문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동시에 20대 안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포함하기 위하여 연구자 혹은 참여자 주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4.8(SD=3.26)세였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학교 졸

업 1명(4%), 대학교 재학 10명(40%), 대학교 졸업 9명(9%), 대학원 이상 5명(20%)였다. 직업 상태로는 대학생 11명(44%), 일반 사무직 4명(16%), 전문직/연구원 2명(8%), 자영업 2명(8%), 공무원 4명(16%), 기타 2명(8%)이었다. 이어 결혼 유무는 미혼 23명(92%), 기혼 2명(8%)이었다. 진술문 분석을 위한 내용 유사성 분류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에 대한 평정 작업은 초점집단 참여자 중 1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에 앞서 연구 절차와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고, 25명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대 여성이 지각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추출된 진술문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를 평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념도 연구의 6단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6단계 절차는 과정-개념도를 위한 준비, 아이디어 산출, 진술문들의 구조화, 개념도 분석, 개념도 해석, 개념도 활용이며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했다. 개념도 해석 단계는 결과 부분에 기술하였으며, 개념도 활용은 논의 및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개념도 연구 방법의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개념도를 위한 준비단계이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초점질문(focus question)을 개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초점질문은 “미묘한 성차별이란, 기존의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차별과 다르게 조금 더 미묘하고 애매모호한 성차별입니다. 때로는 좋은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자를 위해 생각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행동과 생각을 제한하기 때문에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하면 ‘미묘하게’ 차별 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산출단계이다.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각 2명~5명으로 구성된 7개의 초점집단에서 집단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 초점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집단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혹은 연구보조자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초점질문을 설명하고 집단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였으며, 연구보조자는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배포 및 수거, 녹음, 간단한 기록 등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진행 시간은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와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을 포

함하여 대략 50분~7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소요시간 등 연구 참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하고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재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내용은 녹음 후에 축어록 형태로 문서화하였고 보고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진술문을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심리학 교수 1인과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1인이 함께 산출된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편집하였다. 진술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진술문을 종합하기 위해 연구자들 이외에 심리학 전공 박사과정 1인의 검토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이 보고한 내용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명료하게 진술문의 문장을 편집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의 진술문을 100개 이하로 축약하라는 제안을 참고하여 전체 278개 진술문을 최종 76개의 진술문으로 종합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문들을 구조화하고 얼마나 성차별적으로 느껴지는지 평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산출단계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 중에서 2차 참여가 가능했던 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 선정된 76개의 진술문을 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서로 내용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문끼리 분류하도록 지시했다. 유사성 분류 작업에서 3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하나의 그룹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진술문으로 구성할 것, 둘째, 모든 진술문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지 말 것, 셋째, 분류되지 않은 진술문은 없게 할 것이었다. 이어 진술문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으로 느껴지는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과정은 대략 40분~70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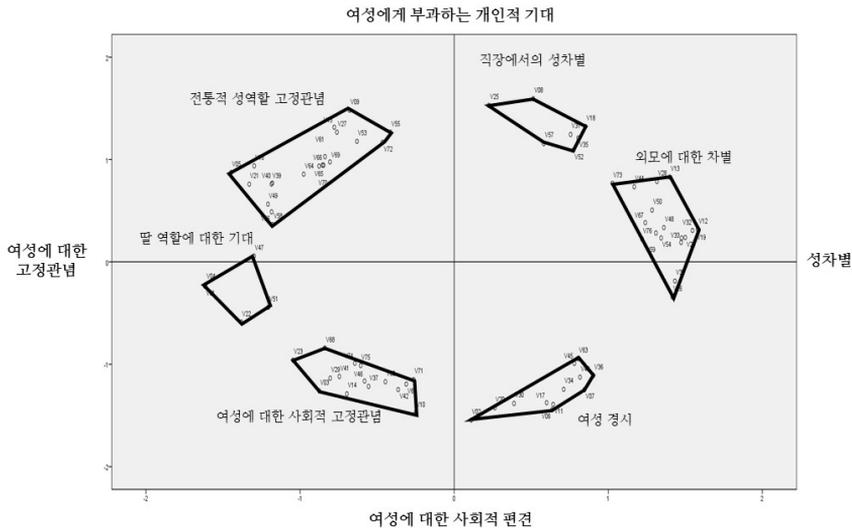
네 번째 단계는 개념도 분석단계이다. 참여자들의 유사성 분류 결과를 같은 그룹으로 묶은 진술문들은 0, 서로 다른 그룹으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각각의 유사성 행렬표로 제작한 후, 참여자의 수만큼 만들어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 Group Similarity Matrix)를 제작하였다. GSM를 바탕으로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차원 척도법을 실시하였다. 이후 산출된 각 점들의 x , y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에서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Ward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차원 척도법에서 제시된 지도 상에 위치한 점들을 내적으로 일관된 군집으로 나누기 위함이다. 진술문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평정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2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최종 76개의 진술문으로 실시한 유사성 분류의 결과를 집단 유사성 행렬 형태로 제작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차원 분석에서 stress값이란 비적합성의 정도를 보여주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갖는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원 자료와 좌표 위의 대상 간의 거리가 완벽하게 일치함을 뜻하고, 1의 값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최현철, 2016).

본 연구에서는 stress값이 1차원에서는 .649, 2차원에서는 .401, 3차원에서는 .336, 4차원에서는 .294이었으며, stress plot에서 크게 꺾이는 지점(elbow)이 2차원에서 나타났다. Kruskal(1964)은 stress plot이 처음으로 크게 꺾이는 지점의 차원 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Kane과 Trochim(2007)은 다차원 척도법에서 권고하는 stress값은 대부분의 개념도 연구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며, 개념도 연구의 대략 95%에서 stress값이 .205에서 .365 사이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stress값을 그룹핑 데이터를 대표하는 지도(map)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이드라인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높은 stress값은 유사성 매트릭스 안에 2차원에 표현된 것보다 더 큰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혹은 참여자들이 진술문을 그룹핑하는 방식에 상당한 분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의 stress값은 2차원에서 .401로 이는 권고되는 stress값 보다 크지만, elbow 지점이 2차원에서 나타났으며, 차원 선택 시 가능한 적은 차원의 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용의 용이성 측면을 고려하여 2차원 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차원 척도분석에 이어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덴드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분류한 범주의 수인 최소 5개에서 최대 16개 ($M=8.34$, $SD=2.69$)내에서 선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6개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 2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개념도

20대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진술 문 간의 거리는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진술문들을 얼마나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먼저 2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개념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에게 부과하는 개인적 기대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2차원 구조로 나타났다. 개념도 상에서 위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성차별, 외모에 대한 차별 등으로 여성의 외모, 직장, 가정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여러 역할 혹은 특성에 대한 기대들과 관련한 것이다. 즉, 여성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기대들과 관련이 있다. 아래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딸 역할에 대한 기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여성 경시 등 사회적인 수준에서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일반적인 편견들과 관련한 것이다. 차원과 관련된 진술문들의 예를 살펴보면, 개념도의 위쪽인 여성에게 부과되는 개인적 기대에 대한 진술문으로는 ‘직장에서 여자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늘 자연스럽게 맡는다.’ ‘육아 중인 여자 직원은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자는 대학원 진학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시집이나 빨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아서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채용이 되지 않았다.’ 등이 있다. 개념도의 아래쪽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진술문으

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표현되는 단어에서 일반적인 단어(예: 부모, 형제자매, 신사숙녀)는 남자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예: 년놈들)는 여자부터 나온다.’, ‘여자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여자가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들은 기계/공구/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테니 도와주겠다고”한 적이 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 여성을 비난하곤 한다.’ 등이 있다.

개념도 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딸 역할에 대한 기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들과 관련한 것이다. 오른쪽에 위치한 군집들은 직장에서의 성차별, 외모에 대한 차별, 여성경시로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기준, 규율이 부과되는 성차별에 관련한 것이다. 차원과 관련된 진술문들의 예를 살펴보면, 개념도의 왼쪽인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된 진술문으로는 ‘부모는 딸에게는 친절, 도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딸이 부모를 돕지 않을 때 나무라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돕지 않을 때 나무라지 않는다.’, ‘엄마는 언제나 내가 남편 밥을 잘 챙겨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는다.’,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효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딸이 효도 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은 작은 성의만 보여도 훨씬 더 크게 감동한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분홍색 옷, 화장품 모형, 소꿉놀이 세트를 선물 받고, 남자는 파란색 옷, 자동차 모형, 총과 칼 모형을 선물 받는다.’ 등이 있다. 개념도의 오른쪽인 성차별과 관련된 진술문으로는 ‘남자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면 개성 있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면 사회에 불만이 있냐는 질문을 듣는다.’, ‘나이가 어린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의 외모를 칭찬한다.’, ‘여성 인권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가 “메갈” “여시하냐” “페미” 라고 모욕을 주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게 억압한 적이 있다.’, ‘직장에서 남자 직원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친해지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자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등이 있다.

6개의 군집화된 범주와 범주에 속한 진술문들, 그리고 각 진술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평정한 값은 [표 1]에 있다. 6개 군집은 ‘외모에 대한 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군집 1인 외모에 대한 차별에서는 총 17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외모 치장의 권유와 개인의 능력 혹은 성품보다 외모가 중요시되는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다. 군집 2인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총 20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었으며, 결혼, 출산, 육아 및 집안 일 등이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

에 대한 내용이다. 군집 3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는 총 15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성은 수동적이며, 물리적 혹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친절하다는 등의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다. 군집 4인 직장에서의 성차별에서는 7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 내에서 여자 직원은 업무에 소극적일 것이며, 돌봄과 관련된 특정 업무나 직업에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다. 군집 5인 여성 경시에서는 12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차별의 부인과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여성에게 잘못을 부과하는 사회적 분위기, 남성과 여성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여성에게 더 큰 비난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의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6인 딸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는 5개의 진술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아들과 달리 딸에게만 기대되는 역할과 특성에 대한 내용이다.

〈표 1〉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에 대한 평정

군집명 / 진술문	성차별적	
	M	SD
1. 외모에 대한 차별	4.67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예쁜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5.00	0.00
남자는 화장을 안 하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지만, 여자는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며 치장한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다.	4.93	0.26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고, 하지만 입은 직원에게 치마 입을 줄도 모르냐는 비난을 하는 것을 들었다.	4.93	0.26
영화 시사회에서 남자배우에게는 배역에 대한 질문을, 여자배우에게는 외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곤 한다.	4.93	0.26
머리가 짧고 화장을 하지 않아서 "단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채용이 되지 않았다.	4.93	0.26
직장에서 젊은 여자들은 직장의 꽃이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든다는 말을 들었다.	4.93	0.26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정도의 평가를 하지만,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평가한다.	4.87	0.35
능력보다는 젊고 외모가 예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다.	4.87	0.35
남자는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면 개성있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면 사회에 불만이 있냐는 질문을 듣는다.	4.67	0.62
직장에서 남자는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하지만, 여자에게 요구되는 외모꾸미기와 복장규정은 더 엄격하고, 다양하다.	4.67	0.72
외모를 꾸미지 않으면 여자는 연애를 하지 못 한다는 말을 들었다.	4.67	0.49
직장에서 남자상사에게 옷이 너무 야하다, 치마가 너무 짧다는 지적을 들었다.	4.60	0.51
여자의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를 눈여겨 보는 시선이 있다.	4.60	0.63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아픈냐는 질문을 들었다.	4.33	0.72
짧은 옷을 입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본다.	4.27	0.46
나이가 어린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의 외모를 칭찬한다.	4.13	0.83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가깝지 않은 지인에게 다른 여자와 외모를 비교 당한 적이 있다.	4.00	0.85

〈표 1〉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에 대한 평정(계속)

군집명 / 진술문	성차별적	
	M	SD
2.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4.73	
남자는 원래 육아를 잘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여자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5.00	0.00
집안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5.00	0.00
여자는 대학원 진학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시집이나 빨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	5.00	0.00
남자는 살림과 요리를 못하면 장가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살림과 요리를 잘하면 빨리 시집 가야겠다는 말을 듣는다.	5.00	0.00
여자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초대되었을 때 부엌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남자가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초대되었을 때는 돕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5.00	0.00
여자는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아이를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었다.	4.93	0.26
엄마는 언제나 내가 남편 밥을 잘 챙겨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묻는다.	4.93	0.26
제사나 명절 때 엄마는 회사에서 조퇴하고 음식 준비를 하지만, 아빠는 퇴근 후에 집에 온다.	4.93	0.26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시가에서 안 좋게 본다라는 말을 들었다.	4.93	0.26
여자는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4.87	0.35
제사나 명절 때 딸은 음식준비를 돕지 않으면 비난 받지만, 아들은 돕지 않고 쉬어도 비난 받지 않는다.	4.87	0.35
사람들은 여자의 직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 할 수 있으면 좋은 직업이라고 말한다.	4.67	0.49
여자는 결혼 적령기를 놓치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난다는 말을 들었다.	4.67	0.62
출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여자가 어려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 아기를 빨리 낳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4.60	0.63
태아의 건강은 아빠보다는 엄마의 책임이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를 하지 말고,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4.53	0.64
결혼식은 여자를 예쁘게 치장해서 남자에게 넘기는 식인 것 같다.	4.47	1.06
육아 중인 여자 직원은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4.40	0.63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자 가족들이 반대한 적이 있다.	3.60	0.99
직장에서 여자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예: 간식준비, 탕비실 정리, 손님접대) 늘 자연스럽게 맡는다.	4.80	0.41
여자가 사업을 시작하면 당돌하다고 말한다.	4.40	0.74

<표 1>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에 대한 평정(계속)

군집명 / 진술문	성차별적	
	M	SD
3.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4.71	
전통적인 수동적 태도의 여자들을 진짜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	5.00	0.00
여자가 큰 차를 타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면 남자답다는 말을 듣는다.	5.00	0.00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잘 웃어주고, 고분고분하고, 조신하고, 맞장구도 잘 쳐주길 기대한다.	4.93	0.26
여자는 남자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4.87	0.35
영화에서 남자캐릭터는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지만, 여자 캐릭터는 예쁘고, 수동적이고, 일을 망치고, 남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모습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4.87	0.35
여자는 화를 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4.80	0.56
여자는 방이 더러우면 안되지만, 남자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방이 조금 더러워도 봐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4.73	0.80
연애 관계에서 여자는 호감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남자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4.67	0.49
여자는 친절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비난 받는다.	4.67	0.49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분홍색 옷, 화장품 모형, 소꿉놀이 세트를 받고, 남자는 파란색 옷, 자동차 모형, 총과 칼 모형을 선물 받는다.	4.60	0.63
성인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4.60	0.83
여자는 남자보다 적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식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밥을 적게 준 적이 있다.	4.47	0.64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들은 기계/공구/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테니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4.47	0.52
내가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의 짐을 옮길 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남자가 먼저 짐을 옮기는 걸 대신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4.07	0.88
남자와 여자가 함께 표현되는 단어에서 일반적인 단어(예: 부모, 형제자매, 신사숙녀)는 남자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예: 년놈들)는 여자부터 나온다.	4.87	0.35
4. 직장에서의 성차별	4.81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자일 때는 직업 명사 앞에 "여"를 붙여 여자임을 표시하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4.93	0.26
사람들은 여자상사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자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다.	4.93	0.26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도 열심히 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강하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말을 들었다.	4.87	0.35
남자 상사가 우리 회사는 여자 직원이 힘든 일을 피하면서도 승진할 수 있는 좋은 회사라고 말했다.	4.80	0.41
남성의 지위를 여자가 얻었을 때 그것을 용납하지 못 하는 남자들이 있다.	4.80	0.41
여자는 거래처에서 대우를 못 받을 테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4.67	0.62
직장에서 남자 직원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친해지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자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4.67	0.62

〈표 1〉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군집과 진술문, 진술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에 대한 평정(계속)

군집명 / 진술문	성차별적	
	M	SD
5. 여성 경시	4.67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 여성을 비난 하곤 한다.	5.00	0.00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에 비해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발언을 더 많이 하며, 여자는 성적발언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	5.00	0.00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조신하게 문을 잘 잠궈야 하며 남자 신발을 신발장에 두거나 남자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틀어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4.93	0.26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해도 비난 받지 않지만, 여자는 경제력이 괜찮은 남자를 원하면 된장녀라고 비난 받는다.	4.87	0.35
남자가 자신보다 더 어린 여자를 사귀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여자가 자신보다 더 어린 남자를 사귀면 비난받는다.	4.80	0.41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차별이 없다는 말을 남자로부터 들었다.	4.80	0.41
여성 인권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가 “메갈” “여시하나” “페미”라고 모욕을 주며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게 억압한 적이 있다.	4.73	0.70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에 비해 여성범죄자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4.67	0.62
몰카를 찍히지 않았고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차별을 당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4.60	0.63
남자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 혹은 성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별 일 아니니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4.53	0.64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일을, 남자친구가 부탁하자 바로 들어줬다.	4.47	0.64
여자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여자가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	3.67	1.05
6. 딸 역할에 대한 기대	4.67	
장례식, 결혼식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나이가 어린 남자가 권위있는 역할을 맡는다.	4.93	0.26
부모가 딸에게는 해주지 않는 경제적 지원(예: 등록금, 자동차, 집)을 아들에게는 선뜻 해준다.	4.73	0.80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효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딸이 효도 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아들은 작은 성의만 보여도 훨씬 더 크게 감동한다.	4.67	0.62
부모는 딸에게는 친절, 도움,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딸이 부모를 돕지 않을 때 나무라지만, 아들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돕지 않을 때 나무라지 않는다.	4.60	0.63
딸이 아들보다 좋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딸의 인간성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들보다 딸이 부모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고, 친절하고, 애정 어린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4.40	0.63

참여자들이 해당 진술문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평정한 결과로는 직장에서의 성차별(M=4.81),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M=4.73),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M=4.71) 순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여성 경시(M=4.67), 외모에 대한

차별(M=4.67), 딸 역할에 대한 기대(M=4.67)이 동일하게 성차별적이라고 평정되었다. 진술문 별로는 ‘전통적인 수동적 태도의 여자들을 진짜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M=5.00).’,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 여성을 비난하곤 한다(M=5.00).’,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예쁜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M=5.00).’, ‘남자는 살림과 요리를 못하면 장가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살림과 요리를 잘하면 빨리 시집가야겠다는 말을 듣는다(M=5.00).’, ‘남자는 원래 육아를 잘하지 못 하니까 당연히 여자가 아이를 돌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M=5.00).’,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에 비해 남자가 여자에게 성적 발언을 더 많이 하며, 여자는 성적 발언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M=5.00).’, ‘여자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초대되었을 때 부엌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고, 남자가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초대 되었을 때는 돕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M=5.00).’, ‘여자는 대학원 진학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시집이나 빨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M=5.00).’, ‘여자가 큰 차를 타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면 남자답다는 말을 듣는다(M=5.00).’, ‘집안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M=5.00).’는 진술문들 모두 가장 성차별적이라고 평가되었다. 76개의 진술문 중 2개의 진술문만이 평균 3점대로 성차별적이지 않다는 진술문으로 평정되었고, 2개의 진술문은 ‘여자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여자가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다(M=3.67).’, ‘결혼을 안 한다고 하자 가족들이 반대한 적이 있다(M=3.60).’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20대 여성들이 인식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들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2차원 6개 군집으로 이루어진 개념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들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서 도출된 차원은 ‘여성에게 부과하는 개인적 기대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나타났다. 개념도의 위쪽은 가족, 직장 등 여성이 속해있는 집단에서 여성 개인에게 부과하는 기대 혹은 여성에게 부과하는 외모에 대한 기대 등으로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기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 쪽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정적인 특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말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도의 왼쪽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고정관념들을 구성되어 있으며, 반대쪽인 오른쪽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기준이 부과되거나, 남성에 비해 여성을 경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도의 구성요소에서 여성 개인에게 부과되는 기대, 사회적 차원에서의 편견을 모두 지각하고 있으며, 단순히 여성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성차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가정, 직장, 미디어, 사회적 통념 등 일상의 다양한 장면에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개념도 결과에 따르면 미묘한 성차별 경험의 군집은 6개로, '외모에 대한 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도출된 6개의 군집은 Sue와 Capodilupo(2008)와 Judson(2014)이 제안한 미묘한 성차별 범주와 하위 요인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외모에 대한 차별 군집에서는 Sue와 Capodilupo(2008)의 성적대상화와 Judson(2014)의 대상화, 외모에 대한 압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직장에서 젊은 여자들은 직장의 꽃이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든다는 말을 들었다;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아프냐는 질문을 들었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군집에서는 Sue와 Capodilupo(2008)의 전통적인 성역할 맡기와 Judson(2014)의 전통적 가사 의무의 기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집안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자는 대학원 진학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시집이나 빨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 여성 경시 군집에서는 Sue와 Capodilupo(2008)의 2등 시민으로 간주함, 열등한 존재, 여성의 투명인간화, 성차별적인 농담, 성차별 현실의 부인, 개인적 성차별 부인과 Judson(2014)의 성차별 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일을, 남자친구가 부탁하자 바로 들어줬다;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여성차별이 없다는 말을 남자로부터 들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군집에서는 Sue와 Capodilupo(2008)의 성차별적인 언어사용과 Judson(2014)의 자기주장에 대해 혹독하여 여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남자와 여자가 함께 표현되는 단어에서 일반적인 단어(예: 부모, 형제자매, 신사숙녀)는 남자부터 나오고,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예: 년놈들)는 여자부터 나온다; 연애 관계에서 여자는 호감을 먼저 표현하지 말고, 남자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군집에서는 Judson(2014)의 직업에 대한 가부장적 기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직장에서 남자 직원들끼리 담배를 피우면서 친해지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자는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외국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비슷한 경험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에서 개발된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GM, 김은하, 2018)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6개 군집에는 EGM의 2개 하위요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GM의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포함된 내용인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함, 소극적이기를 기대함, 전통적 가사 의무에 대한 기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기대 등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 경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군집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며(남자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 혹은 성차별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별 일 아니니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전통적인 수동적 태도의 여자들을 진짜 여자라고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 남자는 살림과 요리를 못하면 장가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여자는 살림과 요리를 잘하면 빨리 시집 가야겠다는 말을 듣는다; 여자는 미래에 결혼과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에 포함된 내용인 성적 대상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외모에 대한 차별 군집에서 포함하고 있다(나이가 어린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른의 외모를 칭찬한다; 여자에게는 무엇보다 예쁜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김은하(2018)는 EGM이 2요인 구조로서 7요인 구조를 지닌 GMS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아직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비록 척도를 개발하고 그 요인구조를 확인한 연구는 아니지만 개념도 연구방법을 통해 미묘한 성차별이 6개 군집으로 도출됨으로써 EGM의 2요인 구조에 비해 보다 다양한 차원의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개념들이 확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개념도가 선행연구에서 밝힌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험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보다 정교하고 다양하게 미묘한 성차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과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본 연구의 개념도에서는 ‘딸’의 역할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제사나 명절 때 딸은 음식준비를 돕지 않으면 비난 받지만,

아들은 돕지 않고 쉬어도 비난 받지 않는다.’, ‘딸이 아들보다 좋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딸의 인간성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들보다 딸이 부모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고, 친절하고, 애정 어린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등의 진술문들이 딸 역할에 대한 기대 군집에 포함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20대 여성으로 미혼 상태의 참여자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딸, 엄마, 며느리 등 가정 내 여성의 여러 역할들 중 딸의 역할에 대한 경험이 주를 이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깊게 영향을 주고 있다(Cho, 2013).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가족 구성원간의 위계와 권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며, 불균형의 결과로서 억압과 차별을 내재하게 된다(Hamilton & Sharma, 1997). 이로 인해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가지는 전통적인 역할이 서구 사회에 비해 더 강조되었기 때문에 Sue와 Capodilupo(2008)과 Judson(2014)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딸에 대한 기대’가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는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통치 이념인 효(孝)의 영향으로(박병호, 1995),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의 성차별에 비해 비교적 감내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일례로, 2003년도에 발표된 남녀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김지영·최상진, 2003)에서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기대하는 효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2000년대 초에 이뤄진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간의 차이에는 최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더욱 대중화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진술문들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교육의 기회는 비교적 평등하게 받았지만, 여전히 요리, 집안일, 부모 돌봄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남아 선호현상이 빠르게 약화되고 ‘딸바보’와 같은 단어가 유행하며 여아 선호 경향이 확고한 상승세를 보이는데(김용미, 2019), 이러한 현상이 부모들이 딸과 아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한 데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딸이 아들보다 부모에게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하며 부모와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지낼 것이라는 전통적인 딸의 역할에 대한 견고한 기대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셋째, 군집들이 각각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평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성차별,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순으로 성차별적이라고 평정하였으며, 뒤이어 외모에 대한 차별, 여성경시, 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동일하게 성차별적이라고 평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군집이 5점 리커트에서 4.5점이 넘는 평균 점수로 평정되어 참여자들이 6개의 군집 모두를 비교적 높게 성차별적이라고 평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차별이 가해자가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의도로 보이지 않더라도 20대 참여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성차별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개의 군집 중에 가장 성차별적이라고 평정된 군집은 직장에서의 성차별이었다. 참여자들의 44%인 11명이 현재 대학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성차별 군집이 가장 성차별적으로 평정되었다. 이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중 80.1%가 1회 이상 노동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대학 재학 중이지만 아르바이트, 인턴과정 등에서 경험한 직장에서의 미묘한 성차별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송효원, 2013). 또한 대학생은 대학교에서 사회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곧 자신들이 겪어야 할 차별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군집들의 내용들보다 더 성차별적이라고 평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성차별 평정에서 5점 만점을 받은 진술문 10개 중 5개가 전통적인 여성 역할, 요리, 집안일, 육아 등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부과된다는 내용들로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진술문이었다. 따라서 가정 내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기대와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직장,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성차별적이라고 평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최근까지 여성의 다중역할과 관련하여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일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에서의 엄마, 며느리의 역할도 동시에 잘 해내고 싶어하는 슈퍼우먼 신드롬 현상이 있었다(Shaevitz, 1984). 이 시기의 여성들은 활발한 사회 진출을 하면서도 동시에 퇴근 후에는 집에서 전통적인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었다. 하지만 현재의 20대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용하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새로운 역할을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도 연구에서 stress 값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Kane & Trochim (2007)이 제시한 .205~.365 값이

stress 값의 표준값으로 사용되고 있다(Péladeau, Dagenais, & Ridde, 2017).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stress 값은 .401로 참여자들이 진술문을 내용의 유사성으로 분류하는 작업에서 비교적 일관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들이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해서 아직 정교한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은하 등(2017)이 개발한 MAWS의 12문항이 성적 대상화, 승진, 고용에서의 차별, 비하적 발언,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 성차별의 부인 등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김은하(2018)의 EGM에서 GMS의 7가지 하위 요인 중 가부장적 직업 기대를 제외한 6가지 요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의 2요인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명백한 성차별과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간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일례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차별의 크기가 감소하며, 저학력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금 차별의 정도가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보면, 여성의 최종 학력에 따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의 영역과 강도에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임정준, 2010). 또한 참여자의 44%가 대학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개념화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 재학 중인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여자 대학에 재학 중인 상태로, 학교 내에서의 성차별 경험이 남녀공학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참여자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차별은 문화적 관점에서 각기 다른 맥락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직장, 가정, 학교 등 여러 일상의 장면, 그리고 다양한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미묘한 성차별 경험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명백한 성차별과는 다른 미묘한 성차별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풍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묘한 성차별을 가하는 주체의 성별에 대해 구분짓지 않고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GMS(Judson, 2014)에서는 남성이 주체가 되는 미묘한 성차별과 여성이 주체가 되는 미묘한 성차별을 구분하여 문

향이 제작되었지만 주체의 성별에 따른 구성요인이 측정되지는 않았다(남성들은 내가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성들은 내가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에서 미묘한 성차별을 가하는 주체의 성별에 따라 여성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성별에 따라 주로 가하는 차별의 양상이 다른지에 대해 논의된다면 성차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미묘한 성차별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들과 개념적 구조를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딸 역할에 대한 기대” 군집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적 없는 20대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성차별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의 흐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학문적 의의를 가진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 개발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성차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와는 다른 성별이거나 다른 연령대의 대상자들에게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넓힘으로써 20대 여성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차별조사과(201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예은·연규진(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499-523.
- 김용미(2019).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의 자녀 가치관과 자녀 성 선호에 대한 연구. 아동교육. 제28권 제4호. 5-19.
- 김은하(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4권 제4호. 593-614.
-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4호. 643-667.
- 김지영·최상진(2003).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1호. 49-67.
- 김지예·이상희(2013). 콤포트 푸드 구성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3호. 609-629.
- 민경화·최윤정(2007). 상담일반: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제8권 제4호. 1291-1307.
- 박병호(1995). 효 윤리의 법 규범화와 그 계승. 효 사상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23-248.
- 손지빈(2019). 20~30대 여성들의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 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효원(2013). 서울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연구원.
- 오혜진(2019).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성범(2019). 한국 남성의 남자다움은 무엇인가?: 남성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5권 제3호. 203-229.
- 이연정(2019).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및 세대 간 차이.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준(2010).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여성학. 제26권 제4호. 39-61.
- 정찬석·이은경·김현주(2004).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의 도움경험 분석:

- 개념도 연구법 (Concept mapping)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21-35.
- 최수연(2009).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철(2016). 사회과학 통계분석: SPSS/PC+Windows 23.0. 서울: 나남신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의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anks, K. H., Kohn-Wood, L. P., & Spencer, M. (2006). An examination of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of everyday discrimination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6), 555-570.
- Basford, T. E., Offermann, L. R., & Behrend, T. S. (2014). Do you see what I see? Percep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the workpla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8(3), 340-349.
- Bedi, R. P., & Alexander, D. A. (2009). Using multivariate concept-mapping for examining client understandings of counselling.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43(2), 76-91.
- Cho, U. (2013). Regionalism: Its origins and substance with competition and exclusion. In H.Y. Cho, L. Surendra, & H. J. Cho (Eds),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A critical perspective* (pp. 18-27), Abingdon: Routledge.
- Derthick, A. O. (2015). *The sexist mess: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exist microaggressions experiences and stress scale and the relationship of sexist microaggressions to women'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 Dipboye, R. L., & Colella, A. (2005). The dilemma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 R. Dipboye & A. Colella (Eds). *The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bases of discrimination at work* (pp. 407-443), Larence Erlbaum Associates.
- Gartner, R. E., & Sterzing, P. R. (2016). Gender Microaggressions as a Gateway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Youth Sexual Violence. *Affilia*, 31(4),

491-503.

- Hamilton, T., & Sharma, S. (1997). The violence and oppression of power relations. *Peace Review*, 9(4), 555-561.
- Harris, A. (2004). *Future girl: Young wom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67-75.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1), 1-27.
- Lewis, J. A., & Neville, H. A. (2015).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89-302.
- Moody, A. T., & Lewis, J. A. (2019).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and 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Black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3(2), 201-214.
- Nadal, K. L., & Haynes, K. (2012). *The effects of sexism, gender microaggressions,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on women'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 P. K. Lundberg-Love, K. L. Nadal, & M. A. Paludi (Eds.), *Women's psychology. Women and mental disorders*(pp. 87-101), Praeger/ABC-CLIO.
- Nadal, K. L., Davidoff, K. C., Davis, L. S., Wong, Y., Marshall, D., & McKenzie, V. (2015). A qualitative approach to intersectional microaggressions: Understanding influences of race, ethnicity, gender, sexuality, and religion. *Qualitative Psychology*, 2(2), 147-163.
- Noh, S., Kaspar, V., & Wickrama, K. A. S. (2007). Overt and subtle racial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Preliminary findings for

- Korean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7), 1269-1274.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éladeau, N., Dagenais, C., & Ridde, V. (2017). Concept mapping internal validity: A case of misconceived mapping?.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2, 56-63.
- Pierce, C. (1970). Offensive mechanisms. In Barbour, F. B., & Barbour, F. B. (Eds.). *The Black Seventies*(pp. 265-282), Boston: P. Sargent
- Rosas, S. R., & Camphausen, L. C. (2007). The use of concept mapping for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0(2), 125-135.
- Shaevitz, M. H. (1984). *The Superwoman syndrome*. New York: Warner Books.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ue, D. W., & Capodilupo, C. M. (2008). Racial,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D.W. Sue & D. Sue (Eds.).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L.,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ue, D. W., Lin, A. I., Torino, G. C., Capodilupo, C. M., & Rivera, D. P. (2009). Racial microaggressions and difficult dialogues on race in the classroom.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2), 183-190.
- Timmins, L., Rimes, K. A., & Rahman, Q. (2017). Minority stress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ransgender individual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3), 328-340.

Abstract

A study on the gender microaggression of Korean women in their 20's using concept mapping*

Hyewon Kang**·Jungyo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South Korean women in their 20s perceive and experience gender microaggression and to clarify the conceptual structure of gender microaggression for them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 The procedur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concept mapping method. First, in order to derive statements about gender microaggression, a focus question wa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s were conducted of 25 women in 20s in Seoul and Gyeonggi-do. After collecting ideas about gender microaggression, 76 final stat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focus groups. Similarity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ve evaluation were performed on 15 participants. Finall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rd method) were used to confirm the conceptual structure of gender microaggression. First, participants were perceived two-dimensions on the map of gender microaggression: 'Individual expectations imposed on women' vs. 'Social prejudices or bias against women' and 'Stereotypes about women' vs. 'Gender discrimination'. Second, Statements are divided into six clusters. The order of assessment for the degree of how much gender discriminative according to the clusters was as follow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raditional gender role stereotypes', 'Social stereotypes of women', 'Disregard of women', 'Appearance discrimination', 'Daughter role expect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 perceived by Korean women in 20s. It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manifestation of gender microaggressions unique to young women in South Korea.

Keywords : Gender Discrimination, Microaggression, Gender Microaggression, Women, Concept Mapping Method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9.

** First Author: ABD, Sungshi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ungshin University.